

고령 농업인 많은 전남 ‘폭염’ 취약... 예방 조치 시급

온열질환자 106명 전년비 3배
야외 작업 많아 무더위에 취약
‘많은 비’ 습도 높아 체감온도 ↑
도, 독거노인 등 집중관리 주력

장마 이후 본격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전남의 경우 고령 농업인이 많고 야외 농작업이 많아 무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영농현장 점검 및 피해 예방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759명으로 이 중 광주 18명, 전남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광주 20명, 전남 32명이었다.

특히 전남에서 지난해에 비해 온열질환자 3배 이상 급증한 데는, 올해 많은 비가 내려 습도가 올라 체감온도가 높아진 점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폭염에 노출되기 쉽다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폭염 3대 취약분야(취약계층·농업인·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정국전남도자연재난과장은“날씨가 더워도 건조하면 탈진 위험이 줄어들지만, 습하면 더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며“지나해와 달리 올해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 온열질환자 발생도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이어“재난도우미 2만9000여명을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상자에게 파견해 도내 독거노인들을 수시로 확인·관리하는 등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농업인 대상으로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폭염 행동요령을 마을 방송을 통

해 알리고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으로 질환 발생 시 대표적 증상으론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난다.

올해 질환별 비율은 △열탈진 53.5% △열사병 21.0% △열경련 15.5% △열실신 8.8% △기타 1.1%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진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등을 유발해 신부전,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 장손상, 폐장손상,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 여러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게 지내기 △야외 활동 자제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등을 권장한다.

안대식질병관리청사무관은“온열질환 사전 방지를 위해선 수분 섭취, 그늘에 있기, 휴식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특히 폭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 어린이들은 더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그는“고령자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복용하는 처방약이 체온이나 땀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서“시원한 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들은“물을 충분히 마시고, 땀 배출로 부족해진 수분을 이온 음료를 통해 보충해야 한다”며“만약 근무 중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질 경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훈영(왼쪽부터), 임시현, 남수현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

‘막내’ 남수현, 양궁 여자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전인

순천여고 출신... 언니들과 금 합작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믿었다’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의 막내 남수현(19·순천시청)이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과 함께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합작했다. 특히 남수현은 8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화살을 8점 이상에 꽂으며 맹활약을 펼쳤다.

한국은 29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5-4(56-53, 55-54, 51-54, 53-55, 29-27)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8강에서 대만을 6-2(52-51, 52-56, 54-53, 56-54)로 꺾은 뒤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고전했다. 첫 세트를 가져왔지만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코너에 물렸고, 마지막 세트를 가져오며 간신히 슛오프로 향했다.

세 명의 선수가 한 발씩 쏜 승부를 가리는 슛오프에서 남수현의 강심장이 빛났다. 먼저 화살을 쏜 전훈영이 9점을 기록한 뒤 남수현의 화살이 10점에 꽂혔다. 임시현의 화살이 7점에 그치며 합계 26점이 됐지만 네덜란드가 합계 23점에 그치면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남수현은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나갔다. 강한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화살을 8점 이상에 꽂았고, 특히 슛오프에서 9점을 쏘며 29-27로 금메달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남수현은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의 단체전 10연패를 합작하며 첫 올림픽 무대를 완벽히 장식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한차례도 놓치지 않은 금메달 행진을 40년째 이어가는데 기여하면서 역사에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남수현은 이날 경기 후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언니들과 단체전 10연패라는 역사를 써 정말 영광스럽다”며 “순천여고에서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렇게 이뤘다는 게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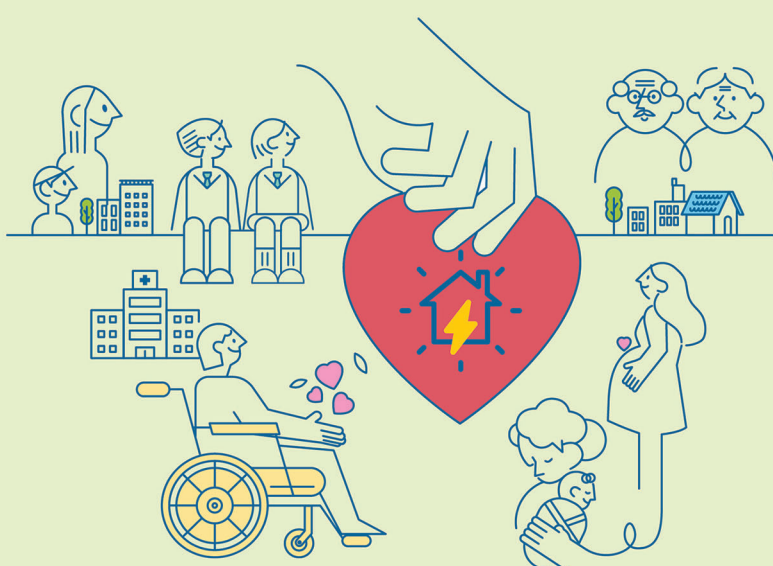
또 “정말 간절히 준비했다. 관중들의 함성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어색함이 있었지만 더 힘을 받아 열심히 했다”며 “단체전 10연패를 목표로 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서로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남수현은 31일 오후 10시15분 자나 알리(이집트)와 64강을 시작으로 개인전에서 2관왕 도전에 나선다. 단체전 10연패를 합작한 임시현, 전훈영과는 결승까지 가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구분	요금차감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총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되어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